Commodity

전쟁에 시달리는 카타르, 다시 각광받는 미국산 LNG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호르무즈 해협서 사라진 유조선, 그러나 우회로 없는 LNG 가 더 큰 문제
- 이번 에너지/공급망 안보 사태는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 다변화 유발
- 최대 수혜자는 안정된 해상 운송 루트+준비된 공급 능력 갖춘 미국 LNG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라진 유조선, 그러나 우회로 없는 LNG 가 더 큰 문제

호르무즈 해협 통한 원유 물동량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지 않았지만 선주들은 혹시 모를 공격 탓에 해당 해협을 기피하고 있다. 사우디, UAE와 달리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등은 우회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탓에 수출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라크는 저장 시설 부족 문제로 감산(150만b/d)을 선택했다. 이렇게 수출이 중단된 물량만 377만b/d이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2~6.5%가 불가항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원유보다 더 큰 문제는 천연가스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우회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부재하다. 지난 2일 카타르 에너지 측은 이 같은 이유로 LNG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20%(오만 제외)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LNG 가격은 비수기(난방 시즌 종료 + 냉방 시즌 미도래)인 탓에 상단이 제한됐지만 현 불가항력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2021~2022년과 같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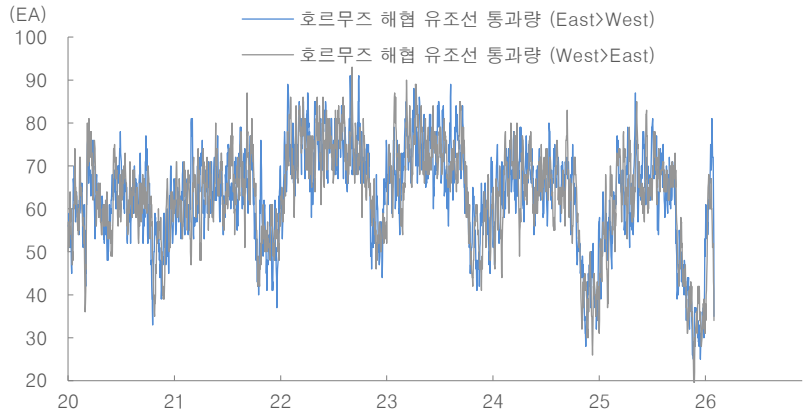
이번 사태는 아시아 국가들의 탈카타르를 유발, 최대 수혜자는 미국 LNG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사태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탈카타르를 유발할 것이란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한 LNG 수출 중 85.9%는 아시아로 흘러간다. 동북아 벤치마크 가격인 JKM은 수출 중단 사태로 미국산 LNG 가격(헨리 허브 기준)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수입 다변화에 있어 최적의 조건이다. 설사 전쟁이 단기(1개월) 내 종식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모두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수입 다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보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자료 〈탈카타르의 서막, Make America LNG Again('25.09.0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탈러시아 행렬에 수혜 받으며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LNG Capa.는 2030년이면 현재 수준의 +60% 이상 확장될 예정으로 이는 전 세계 신규 Capa.의 51%에 달한다. 신규 Capa.의 22%를 확장 중인 카타르가 불가항력 상태에 직면할 시 이를 대체할 유일한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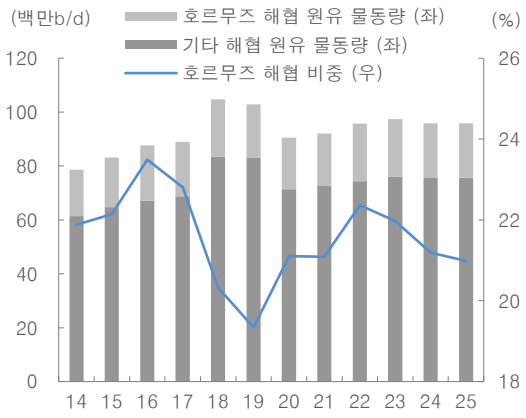
팽창될 수요에 맞춰 이미 생산 Capa. 확장을 위한 지원 방안까지 갖춰둔 상태이다. 지난해 7월 OBBB 법안을 통해 연방정부 소유지 내 유전/가스전에 대한 임대 사업을 분기별로 의무화키로 했으며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LNG 프로젝트를 위한 행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소유지 내 유전/가스전 개발 시 부과되는 로열티율까지 인하한 상태이다. 안정된 해상 운송 루트와 준비된 공급 능력, 탈카타르를 시도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2021~2022년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목도했던 아시아 국가들, 그렇기에 수입 다변화(탈카타르)는 필연적이며 그 수혜는 미국산 LNG가 가져갈 것이다.

그림 1. 이란의 공격 우려에 호르무즈 해협 기피 중인 선주들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글로벌 물동량 21% 지나가는 호르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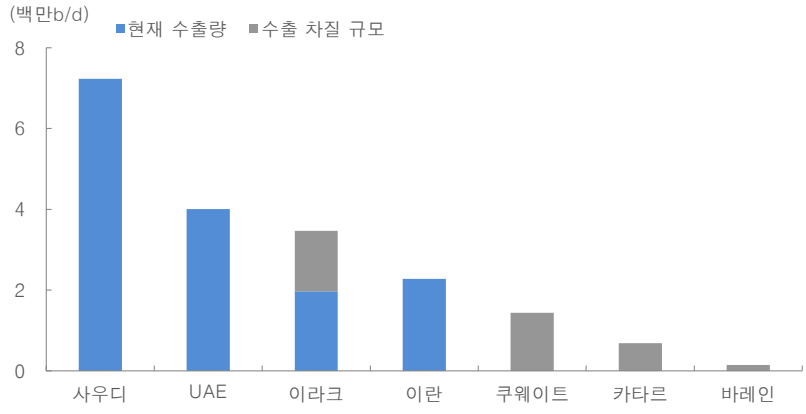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사우디+UAE는 우회로 통해 수출 중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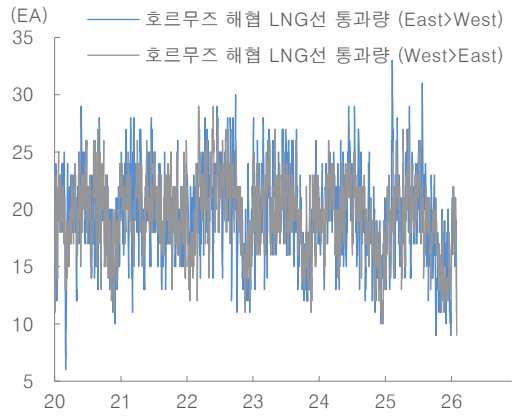
자료: Energy Intelligenc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우회 시설 없는 국가들은 수출 불가, 현재 수출 차질 규모만 377 만 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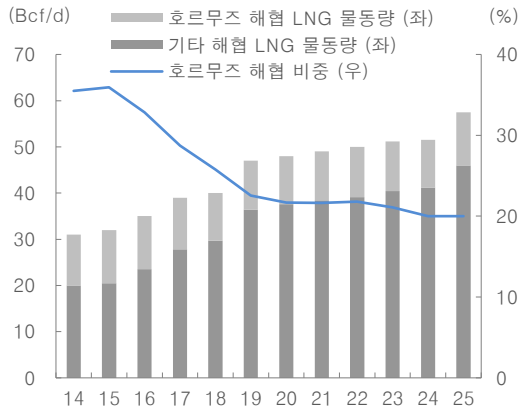
자료: OPEC, I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원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회로 없는 LNG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LNG 역시 전 세계의 20%가 호르무즈 통과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글로벌 2 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불가항력 선언

Press Release

قطر للطاقة
QatarEnergy

QatarEnergy to stop production of L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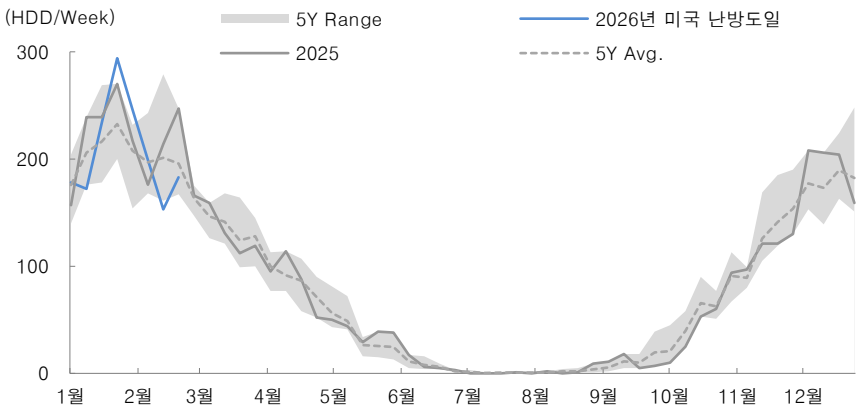
DOHA, Qatar • 02 March 2026 – Due to military attacks on QatarEnergy's operating facilities in Ras Laffan Industrial City and Mesaieed Industrial City in the State of Qatar, QatarEnergy has ceased production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and associated products.

QatarEnergy values its relationships with all of its stakeholders and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the latest available information.

---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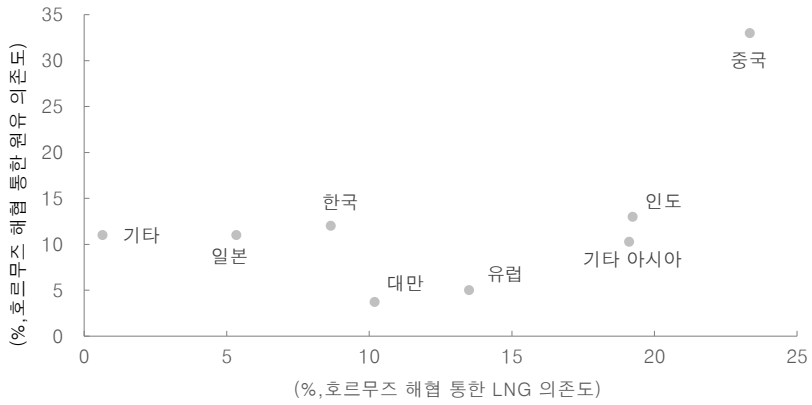
자료: Qatar Energ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지금은 천연가스의 비수기이지만 불가항력 상태 장기화 시 원유보다 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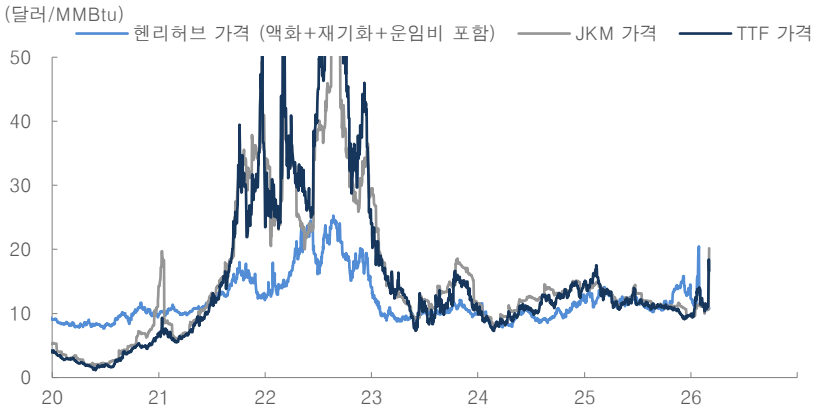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아시아 국가들의 탈카타르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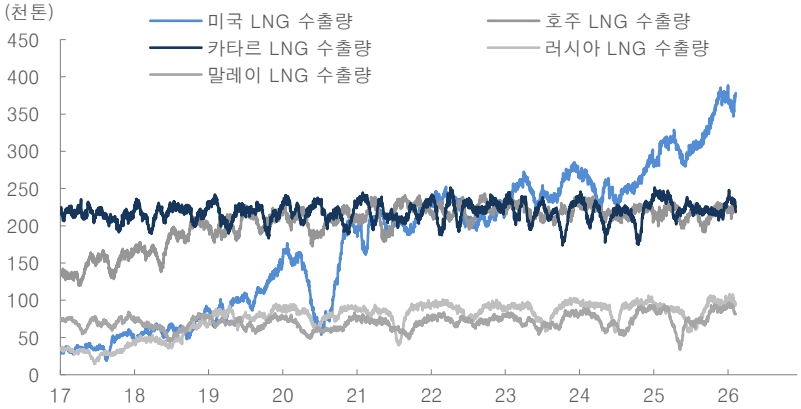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JKM 가격은 미국산 LNG(헨리 허브 기준) 가격을 큰 폭으로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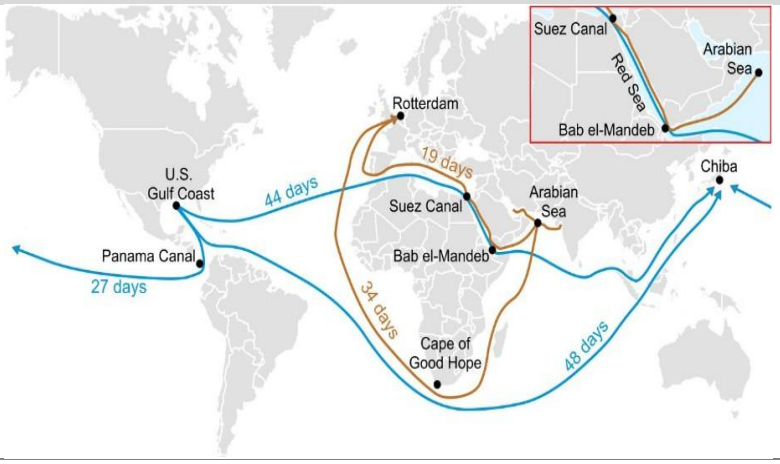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전쟁이 단기 내 종식된다 하더라도 본격화될 수입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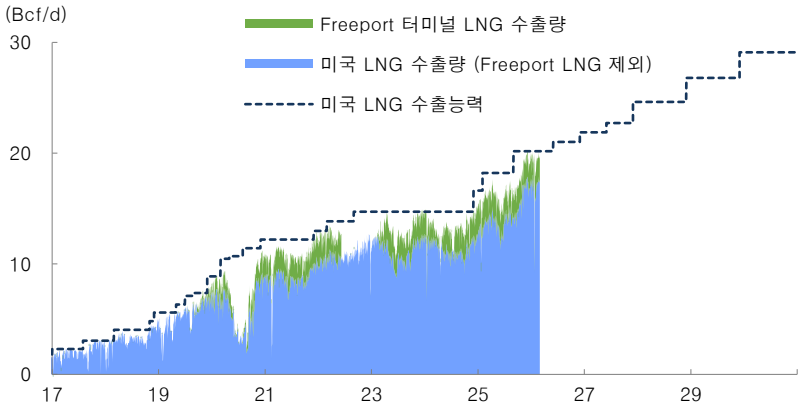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모두 경험한 아시아, 더욱 매력적일 미국산 LNG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미국산 LNG 에 대한 수요 증가 → LNG 터미널 확장 기대로 연결 가능



자료: EIA,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1. 미국은 OBBB 법안 통해 증설을 위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한 상태

구분	주요 내용
시추 개발/ 인프라 지원	연방정부 소유 공유지에서의 유전/가스전 분기별 임대 의무화 (와이오밍, 뉴멕시코, 콜로라도, 유타,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네바다, 알래스카) 미 멕시코만 내 30 건 해상 유전/가스전 임대, 이 가운데 1 건은 2025 년 이내, 2026~2039 년에는 매년 최소 2 건 이상 임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 조항 폐지
	알래스카 쿡 만 내 6 건의 유전/가스전 임대(2032 년限), 이 가운데 1 건 이상은 2026 년 내 임대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NPR-A) 내 5 건의 유전/가스전 임대 재개, 이 가운데 1 건 이상은 12 개월 내 임대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 내 2 건의 유전/가스전 임대(2032 년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대출 보증 이행 위한 행정 비용 지원(에너지부)
비용 절감 지원	연방정부 소유 공유지 내 유전/가스전 개발 시 로열티율 인하(16.7~18.7% → 12.5~16.7%)
	연방정부 소유 토지/수역 유전/가스전에서 발생한 메탄 로열티율 부과 연기(→2035 년)
	원유/천연가스 생산 기업의 무형시추비용(IDC) 공제 재허용
	원유/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NEPA) 규정 완화, 검토 기간 단축(프로젝트 비용의 125%까지 검토 비용 지원)
	전략비축유(SPR) 재비축 예산 축소(13.0 억달러 → 1.7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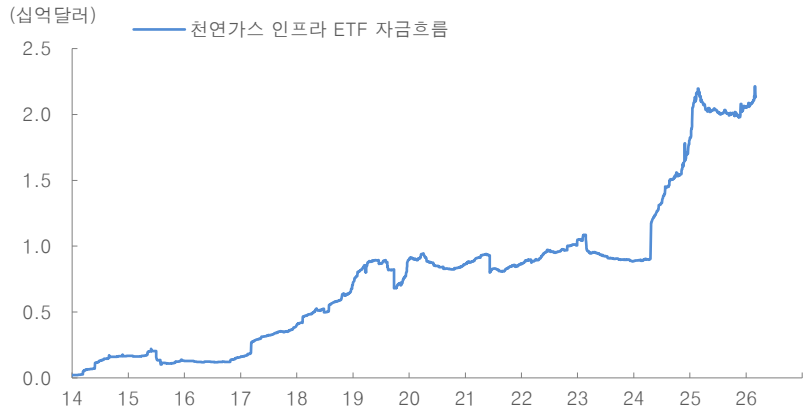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2. 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론도 부상할 수 있는 환경

항목	알래스카	동남부(텍사스 등)
총 프로젝트 비용	약 440 억달러	100~200 억달러
액화비용(MMBtu 당)	2.2~2.5 달러	1.0~1.3 달러
운송기간(미국→아시아)	7~9 일	20 일 이상(파나마 운하 경유 시)
전체 생산 비용(추정) (MMBtu 당)	5.5~6.5 달러	3.5~4.5 달러
장점	아시아 근접(짧은 운송거리) 미국 LNG 수출 다변화 기여	저렴한 가스 생산비용 기존 인프라(가스관, 터미널) 구축
단점	기존 인프라 부족/북극 기후 및 지형 변수로 인한 건설/운영 고비용 소요	대유럽 수출 우선 고려 파나마 운하 혼잡

자료: 한국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25.04.11),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미국의 LNG 사업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최진영)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